

## [토론문]

### 미국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의 현지화 고인성 (조지워싱턴대학교)

북미권에서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MLA 보고서(Looney and Lusin, 2019)에 의하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과목 수강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어는 오히려 수강생이 증가했고, 그 전체 외국어 중 열한 번째로 수강생이 많은 외국어 과목이며, 이제는 More Commonly Taught Language 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강생의 비율은 스페인어(50.%)나 일본어(4.9%), 중국어(3.7%)에 비해 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현지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북미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미국내 한국어 교육은 북미 한국어교육학회(AATK) 소속 다수의 대학과 초·중·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의 2014년 기준 전국 1,000여 개 주말 한국학교(혹은 한글학교), 그리고, 세종학당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AATK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대학교가 107개, 초·중·고가 67개로 집계된다. 이 중 고등학교는 38개교인데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에 유리한 AP 시험이나 SAT II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어가 제공되는 고등학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분포도 동부와 서부 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이민자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는 비교적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본 토론에서는 북미지역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현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기로 한다.

북미 지역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강학생들이 늘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지면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배경과 학습 동기와 학습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많은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 음악(K-pop)이나 드라마(K-drama) 등의 미디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대도시든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K-food)이나 미용(K-beauty)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경제나 정치, 사회, 역사, 언어 자체 등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었다. 음악만 하더라도 유명한 가수 외에도 교사의 입장에서 생소한 인디 밴드나 과거의 노래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생겼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국어 수업을 처음으로 들으면서도 언어적으로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초급 수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고등학교 등에서 이미 한국어 수업을 듣거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이제 한국어를 제 2외국어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관심분야를 더 잘 즐기고 이해도를 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는 경우들이 다수 보인다. 게다가 팬데믹시대를 지나면서 수업 활동에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 1. 교재

가장 눈에 띄는 현지화는 교재의 다양화이다.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업은 대략 주 4-6시간 정도씩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이 학부과정 학생이며,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제 2언어이고,

대중문화나 생활 문화를 제외하면 한국의 사회나 역사에 생소한 학생들도 다수이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교재보다 미국 교재를 여전히 선호하는 것도 매개언어인 영어의 필요성이나 등장인물과 내용에 포함된 문화적인 차이 등을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교수진의 숫자 등 학교의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거나 개발하게 된다.

이들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급과 중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면,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 북미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교재<sup>1</sup>

교재 ㅁ 수준	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
Integrated Korean	61	65	35	9
서강한국어	18	16	23	12
사랑해요 한국어	8	8	7	2
Anytime Korean	6	5	n/a	n/a
연세한국어	3	4	1	3
Course Packet	8	7	24	33

**Others:** [A] You Speak Korean (2), New Generation Korean (2), Discover Korean, Dr. Kim's Korean, King & Yeon's Korean, McGill Korean, Learning Korean through Tasks, Wellesley Online Textbook

[B] 재미있는 한국어, Learn Korean with BTS

먼저 한국의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장과 함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재가 등장함에 따라 약 25%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여러 대학의 교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미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서는 북미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공저한 Integrated Korean 을 가장 많이 채택해 왔고, 과반수 이상(약 57%)의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근소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들어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판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20% 정도이고 이런 경향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Others 항목 중 [A]에 포함된 교재들은 모두 북미지역 대학교에서

지난 2022년 AATK 정기학회를 통해 보면 최근 개발되거나 수정된 교재들은 (예, Anytime Korean, New Generation Korean, You Speak Korean 등) 책으로도 출간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온라인상에 e-book 형태의 교재나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블로그형 홈페이지 형태로 교재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sup>1</sup> 이 보고서에서는 64개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학교들에서는 Dynamic Korean 을 사용하는 학교가 26개교(40.6%)로 가장 많고, 소수의 경우 한국 대학교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 응답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고 약 20개교 정도에서는 자체 개발한 교재나 특정 교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활용하는 수업 활동을 연동해 놓기도 한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중인 Integrated Korean 도 기존 방식의 교재 외에 e-book 과 workbook 과 gradebook 등을 결합해 웹클래스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대면, 비대면 혹은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National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K-16) 한국어 학습 표준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북미 전역은 물론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대학교 이상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미지역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K-16) 전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교수요목을 개발하는 데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준별로 목표가 되는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교사 교육이나 자기 계발, 교수요목 개발과 교수방법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북미 지역 여러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ACTFL 에서 제시하는 능숙도 기술 외에도 교재 개발이나 교수요목, 교육과정 개발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ACTFL 의 “5C”의 형식을 따라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에 대한 기술을 살펴 보면 언어 학습이 궁극적으로 유형, 무형의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급 능숙도 수준에서 언어 활동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수준에 따라 문화 습득에 대한 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여기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비교해 본다.

(1)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2012)

**Standard 2.1 Students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s and perspectives of Korean culture.**

**Sample Progress Indicators, Grade 12**

- 생일과 관련된 문화적 행위 나이 세는 방법을 해 보고 이해한다. Example: 돌, 환갑, 띠, 음력, 학번
- 전통 결혼과 현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각 관습의 다른 점, 비슷한 점, 의미 등을 말한다. Example: 맞선, 소개팅, 중매결혼, 연애결혼
- 한국어 특유의 관용구를 사회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의미와 용례 등을 토론한다. Example: 사자성어-상부상조, 일석이조, 새옹지마, 관용표현-코가 높다, 발이 넓다
- 한국의 미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 소풍, 학원, 입시 등과 관련된 교육열 등을 통해 한국의 고등학생의 생활을 이해한다.

**Sample Progress Indicators, Grade 16**

-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국경일 등을 알아보고 문화적 관점을 분석한다. Example: 한글날,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평가한다. (예, 결혼, 장례, 직장 문화)
-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시연해 본다. (예, 칭찬 받기, 사양하기, 효, 비즈니스 예절).

**Standard 2.2 Students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s and perspectives of Korean culture.**

### Sample Progress Indicators, Grade 12

- 도자기, 그림 등 한국의 예술작품을 분석해 보고, 다양한 상징적 요소를 분석한다. Example: 백자, 청자, 산수화, 민화
- 음식, 주거, 오락 등 한국의 일상생활을 경험해 보고 문화적 요소에 대해 토의한다. Example: 한국의 발효 음식 (간장, 된장, 김치), 한옥과 온돌, 노래방, 찜질방, 등산
- 한국의 영화, 문학, 공연 등의 표현물들을 경험해 보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한국인의 생활방식, 신념, 가치관 등을 이해한다. Example: 판소리, B-boy, 난타
-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 및 사상, 가치관 등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Example: 충효사상, 무속신앙, 정(情), 한(恨), 눈치, 케면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이해한다. Example: 한글, 팔만대장경, 거북선, 종묘,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 Sample Progress Indicators, Grade 16

- 한국 문화에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을 알아보고, 토의 및 분석을 하고, 이 장소들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예, 사찰, 교회당, 궁궐, 국회, 대학교 등)
- 한국의 영화, 문학, 예술, 공연 등 문화적 산물을 경험해 보고, 분석 및 비평해 보고, 이들에 담긴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알아본다. Example: 시조, 국악, 임권택 영화, JSA
-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를 알아본다. (예, 광고, 다큐멘터리, 신문, TV 프로그램, 인터넷 등)
- 한국의 대중매체를 분석해 보고, 그 안에 담긴 성역할, 사회적 역할, 대화체, 기관, 및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 (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

물론 이 표준안에는 다른 의사소통 능숙도의 요소들인 언어적, 관제, 지역사회, 비교 등에 대한 부분들의 수준에 따른 지표도 기술되어 있어서 북미 한국어교육에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

### 3. 교수요목 및 교육과정 개발

각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현지화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의사소통 혹은 내용 중심 교수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 방법에 있어서 과제를 중요시하거나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혹은 task-supported language teaching (TSLT)) 결과적인 수행 (performance-based)이나 과업(project-based), 학교가 소속된 인근 지역 공동체와의 실제적인 연계(community-based) 등을 중시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언어적 정확도에 대한 교수를 단순화하고 실제 사용을 강조하면서 게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교재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교수요목이나 전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도 수정을 가하게 된다. 때로는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한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미지역 학술대회를 보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발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9.3%). 특히 다시 찾아온 뉴노멀 시대에는 기존에 연구하던 미디어나 교육에 필요한 기술들도 어느 정도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개별 프로그램 혹은 몇 개의 프로그램이 연합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4. 현지화의 과제

개별 기관의 상황에 맞는 자체 제작: 북미 지역 전체 학습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현장의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교사가 판단하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Postmethod Pedagogy 를 채택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들은 수업의 목표가 되는 언어와 문화의 요소들을 그 내용과 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한국어 프로그램 중 다수는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수업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더라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성과물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공급을 지속할 만큼의 수요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개별 프로그램이나 교사가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물적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아직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적은 초중고(K-12) 한국어 교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 K-12 교사들 중에는 교재를 선택하기 위해 분석하고 시도해 보는 것조차 어려움을 만큼 심각한 경우도 있다. 미국내 여러 한인 지역공동체나 기관, 교사 및 학부모들을 통해 한국어를 K-12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AP 시험 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북미 지역에는 K-16 전학년에 걸쳐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표준이 제정된 바 있어서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과 기술들을 실험할 때 근거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 표준안이 작성된 지 10년이 지나는 사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영역과 인식이 북미권 대학생들은 물론 국제적 인식이 다양해지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듣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다시 초급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으로 대학교의 1년 교육과정을 다 소화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한국어 과정의 연계성을 가지고 전체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